

제 88 호

연중 제 18 주일

(강림 후 9)

1974. 8. 4.

순정이

발행인	김영일
인쇄인	함승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498)

[강론]

아름다운 새벽

정승현 신부



저녁때가 되면 성당 주위의 뜰에서는 젊은이들이 모여 한가롭게 여름날의 시원한 저녁공기를 즐기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느 저녁에 저는 한 젊은이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았읍니다.

“신부님, 성당에 다니면 무엇이 좋습니까?”

갑자기 받은 질문이라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당황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그에게 종교적인 이유를 말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생각에서 저는 인간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해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당을 다니게 되면 (신앙을 갖게되면) 자기의 생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생을 긍정한다는 것, 긍정적으로 생을 영위한다는 것, 생의 즐거움을 깊이 누린다는 것 처럼 좋은 것은 그리 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이는 이말에 좀 의아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았읍니다. 아마 그 젊은이와 비슷한 나이의 젊은 신부에게 인생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이 좀 부자연스러웠는 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신부에게서 종교적인 이유를 기대했다가 의외의 의견을 듣게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래고도 험난한 생을 살아온 어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신부 아닌 신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던 실감있게 들렸거나 적어도 납득이 갔을지도 모르겠읍니다. 제 대답은 그 젊은이의 물음에 언뜻 생각나는 대로 한 대답입니다만 요사이의 제 솔직한 심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웃에 대한 불신이 자꾸 커가는 요즘에 인생의 부정적인 면을 분노와 저주의 감정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워 집니다. 저처럼 하루의 대부분을 사제관에서 지내는 신부에게 보다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하루의 삶을 피곤하게 영위해 나가는 가정과 주부들에게 더 살기 어려운 현실일 것입니다. 깊은 애정으로써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편안을 주는 생활은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속 깊이 “인간탄세”를 외치기 보다는 “인간탄세”라고 부르려고 싶은 때가 더 많습니다.

며칠 전 마해송(馬海松)님의 “아름다운 새벽”이라는 책을 읽고 저는 결코 “인간탄세”를 입밖에 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서전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새벽”과 함께 실린 50여편의 글들을 읽고 저는, 신앙인은 부정(不正)을 부정(否定)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인간을 부정하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배웠읍니다. 인간을 부정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읍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부정을 가차없이 나무랄줄 아는 사람만이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젊은 새 신부로서 저는 마해송 님처럼 생을 긍정하는 미소를 잃지 않으렵니다.

<전동 보좌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1)개회식

□입당송 비나이다. 하느님 날 구하소서. 야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 날 구하고 돌보실 분 당신이시니, 야훼님 더더 오지 마옵소서.

(2)말씀의 전례

□제1독서(전도서 1:2, 2:21-23, 경향잡지 8월호)
이 세상 노고에서 인간이 무슨 이익을 얻으리요?

□충계송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어서 와 엎드려 조배 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앞에 무릎을 꿇세. 당신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우리는 그 목장의 백성이로세. 당신 손이 이끄시는 양떼이로세. ◎

□제2독서(골로사이 3:1-5, 9-11, 성서 P. 460)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위엿는 것을 찾으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알렐루야.

□복음(루가 12:13-21, 성서 P. 163)
네가 쌓아 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신자들의 기도

1. 참 행복의 근원이신 주여, 우리들은 잠깐 지나가는 현세의 것들에 눈이 어두어 권세와 재물을 위하여 너무나 집착하기가 일쑤입니다. 가르쳐주소서. 영원하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주여...

2. 주여, 당신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셨는데도 지금 우리에게만은 장마와 무더위,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물가고에 모두를 짜증스럽게만 합니다. 주여, 도와 주소서. 참을 수 있는 것은 참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그 실마리가 풀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 전지 전능하신 주여, 당신은 모든것을 다 아오시니 우리가 참되게 기도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소서. 우리 주...◎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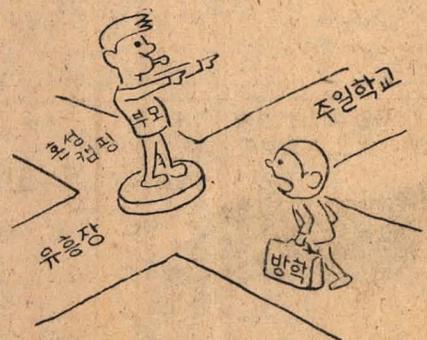
(3)성찬의 전례

□성찬식 □봉헌

□영성체송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으리라.

(4)폐회식

* 순정이 산책 *



고통정리 잘 합니다.



기도 안하는 가정에 드림

김 영 구 신부

1. 기도란 무엇인가? (루가 복음 11장 1-13)

“기도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중에 소원을 아뢰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으며, 도우심을 받을 수도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듣기도 하는 것이다.” “기도는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의 불가능한 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아시며, 이해하시며, 권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목전에 쫓겨 놓는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모하여 허덕이는 숨결이다.”

이것을 주님은 알기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그것이 루가복음 11장 5-10절에 있는 비유 말씀이다.

2. 기도의 필요성 (마태 26장 36-46 : 69-75)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왜 필요한가?

① 모든 실패의 숨은 원인이 기도하지 않은데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져 하면, 구약에서 사울의 생애와, 신약에서 가롯 유다의 전말을 상고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본문에 있는대로 주님은 제자들의 한 때의 실패도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왔던 것이다) 낙원의 아담과 에와는 뱀이 그들에게 왔을 때 어찌 했는가?

② 기도하지 않는 일이 양화이다.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그가 기도하지 않고 베탄다를 거닐다가 밧세바를 발견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기도하지 않음때 실패와 불미한 일은 따르기 마련이다)

③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쟈세마니와 기도를 하시는 때,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 요안, 야고베에게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 하시었다.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도, 이길 수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무장(武裝)을 하지 못한 그들은 기도의 필요를 그렇게 느끼지 못한채,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다. 예수님은 특히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지나쳐, 이 뜻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않다가 시험에 들고야 말았다.

④ 신앙을 지켜가는데 기도야말로 필요하다. 이것이 없는 때,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을 굳게 결심하고, 이것을 또 발표하기도 했으나...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을 지킬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75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서하면서 ”나는 그이를 알지도 못하오”하고 말했다. 바로 그때에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당신은 세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요.”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는 필요하다. 사탄은 깨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유혹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잠에 지고,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의 마음에는 들어갈 수가 있어 넘어지게 하였다.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 때야말로 사탄이 틈타서 우리를 시험에 빠져, 벌 수치스러운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보라. 그렇게도 장담하던 사람이 한여중 앞에서도 떨며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으니 말이다.

⑥ 이기기 위해 기도는 언제나 필요하다. 주님은 기도로 쟈세마니의 그 무서운 싸움도 이기셨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싸움은 있다. 그중 특별히 마음과 육신의 싸움이 있는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여야 하는 것이다. 마음은 선을 행하고, 주님을 믿어야 산다고 하는데, 우리의 육신은 세상을 따라 가자고 한다. 이 싸움에 잘들 넘어진다. 이기는 길은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베드로는 기도없이 지내다가 지고 말았다. 언제나 기도없는 신자는 지며, 기도하는 신자는 승리하는 것이다.

(전주시 교동 1가 132-4)

이 주간의 성경

- 5<월> 독서 (에레미야 28 : 1-17,)
복음(마태오 14 : 13-21, 성서 P. 34)
- 6<화> ※: 예수의 거룩한 변모 축일
독서 (베드로후서 1 : 16-19 성서 P. 538)
복음(루가 9 : 28-36, 성서 P. 152)
- 7<수> 독서 (에레미야 31 : 1-7)
복음(마태오 15 : 21-28, 성서 P. 36)
- 8<목>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4일)
독서 (고린토전서 2 : 1-10 성서 P. 372)
복음(루가 9 : 57-62, 성서 P. 154)
- 9<금> 독서 (나훔 1 : 15, 2 : 2, 3 : 1-7)
복음(마태오 16 : 24-28, 성서 P. 39)
- 10<토> ※: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 축일
독서 (고린토후서 9 : 6-10, 성서 P. 417)
복음(요한 12 : 24-26, 성서 P. 238)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A.
번식 성적 1위인 판토호의 직자
렉스 V 래토프



仔犬분양 (임한진 애견)
문의처 : 전화 ②7692(진북동 어은골)

고 외 과 의 원

고 재 상(나자로)

TEL. ② 7 4 2 5

서중.교우위원회 앞(진북동)

업 소 아 과 의 원

업 의 도(시몬)

TEL. ② 6 8 5 9

서울은행 옆 이치과 뒤

□ 기 도 문 □



하느님 아버지께

헬더 까마라 대주교

(전호에서 계속)

주여,
우리가 실행하지 못했고
또 실행할 수도 없는 일을
친히 하여 주소서.
구호 사업과
기부와
적은 원조의
인색한 한계를 넘어서
정의를 만회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곧잘 화를 내고,
자기들이 그릇된 비판을 받는다고
스스로 느끼며,
순전히 민주주의적이고
순전히 인간적이고
순전히 그리스도교적인 행위까지도
혁명,
또는 공산주의로 간주합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교회가
돈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실히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더라면!
다른 이들을 회개시키고자 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보다 깊은 내적 회개의
모범을 보여 주었더라면!
우리가
우정과 사랑을 통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해야 한다는
이상(理想)을,
우리의 담화나
비판,
또는 항의에 있어서
항상 추구했더라면!
사태는 좀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려는 것은
꽤 까다롭습니다.
명백히
우리가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고
또 아무도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지 못한다면,
시비를 면할 수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홍분시킬 뿐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아버지의 아드님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의 귀로 들으시고,
우리의 입술로 말씀하게 하소서!

주여,
당신 영(靈)을
보내 주소서.
성령만이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이기주의를
깨뜨려 버리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노에 상체에 묶어 두는
불공평한 구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도우시어,
참으로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브라질 대주교)

요십이 (55) 김병오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인생을 몇배 더 잘 살
수 있다.

*성 바오로 서원
T.2~7398

◎ 양서 안내 ◎

정의에 목마른 소리
- (원제) 폭력의 약속한
헬더 까마라 대주교 지음
분도 출판사 펴냄

문 산부인과 의원

문 지 식(레나도)

TEL. ② 2918

경전라사 옆 제신청 뒤

이 신경외과 의원

이 종 두(헨리코)

TEL. ② 2646

아관원 옆, 구 대주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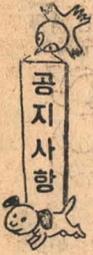
교우 여러분들의 애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합동 7공급소 (활천주장)

길 언 념(엘리사벳)

TEL. ② 2777

범원 베거리 삼광주장자리



1. 전주지구 중·고등 연합회 제6차 지역대회 및 하기 수련회
(8월 11-14일, 군산 둔율동 성당에서)
①접수: 1,500원의 참가비를 각 본당 학생회장에게 내시면 됨(수시로 접수)
②가톨릭 신자인 전주교구 남녀 중·고등 학생이면 누구든지 참가 할 수 있음.
2. 공소 교리교사들을 위한 하기 연수회(8월 18-22일, 완주군 송광사 옆 자연의 집에서)
연수회의 성공을 위한 기도와 특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3. 전주 해성 고등학교 봉사반, 순창군 적성면 평남리에서 봉사활동(7월 26-31일)
①20명의 학생들이 노력 봉사(농로 보수, 도수로 보수, 다리 농기, 제방 보수)와 어린이 지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②지도교사·문정현 신부, 한상갑, 정태표
4. 푸르실로 성공을 위한 기도 부탁(금정이 86호 참조)

(중앙)

전화 ②2651 ②3874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서석구
사도 회장 이복석

1. 사도회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미사후)
2. 꾸리아 월례회 (다음 주일 오후 2시)
3. 주일학교 하계교리 (8월6-10일),
부모님들의 협조와 지도바람
4. 예비자 교리 방학 (8월말까지)
5. 감사합니다
학생 연수회를 위해 지도해 주신 신부님, 수녀님, 강사님, 그리고 노력 봉사해주신 어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헌금 39,246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신용 조합 창립 총회 (다음주일 공식 미사후)
① 신용조합 가입신청은 10일까지
② 신청서 주민등록증과 인장 및 출자금 준비 바람
※ 구좌당 500원, 가입비 200원
3. 봉헌 제대위 벽 장식
익명의 자매께서 우단 1필반을 기증 하셨습니다
기도중에 감사드립니다
4. 어린이 여름 학교 개설 (5일 오전 9시부터)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람
□지난 주 성미 1말 5되 (누계 294말 8되)
□지난 주일 헌금 12,000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철
사도 회장 조해형

1. 성 안토니오 재속 형제회 월례회 (오늘10시미사후)
2. 부녀회 월례회 (다음주일)
3.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8월 동안에)
4. 주일금은 정성껏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5. 중노 2가 소귀례 반장님, 감사합니다
소모니카님이 소제병 1,000봉값 봉헌하셨습니다
6. 성당 신축헌금, 감사합니다
애령회장 박성규(만원), 중노 2가 장명순(3천원)
인후동 이재열, 남노 김봉배(각 1천원)
우아동 이점주 (5백원) 누계 1,495,497원
□지난 주 신축성미 2말 (누계 190말 5되)
지난 주일 헌금 16,475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철
사도 회장 이거영

1. 사도회 월례회 (오늘저녁 미사후)
2. 주일학교와 중·고등학생 교리, 내일부터
국민학생-오전 10시부터
중·고생-오후 4시부터
첫영성체반-오전
3. 8월10일(토) 아동미사는 11시
4. 노송동 성당 신축사업에 협조합니다
노송성당 어머니 합창단의 가정생활 필수품 판매에
함조하여 기금 조성을 도와주시다
5. 7월말 결산보고는 계시판에
모든 신자들은 한번 보시고 유의해 주세요
□지난 주일금 9,651원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1. 사도회 확대회의 (오늘 공식 미사후)
참가자: 교문 감사, 사도회 임원, 구역公所회장
2. 교무금이 38%밖에 안들어왔습니다
9월말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합니다
3. 어린이 하기 특별교리 (내일 9시-9일)
부모님들의 적극 협조 바랍니다
4. 신용조합 임원회의 (다음주일 공식 미사후)
5. 미사시간 변경
토요일 오후 6시 (아동미사 겸 특별미사)
주일 오전 10시, 오후 8시
평일 오후 8시
6. 숲정이는 한 가정에 한부씩
□지난 주일 헌금 6,727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정승재
사도 회장 송재진

1. 하기 방학 특별 교리에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① 국민학생 (내일부터 14일까지, 오전9-12시)
② 중·고생 (내일부터 10일까지, 오후4-6시)
※ 1일 피정 (가톨릭 센터에서)
중학생: 8일(목) 오후 2시부터 9일 12시까지
고등학생: 9일(금) 오후 2시부터 10일 12시까지
※ 학생 회원카드제 실시에 협조 바람
오늘 매 미사후 사제관과 Cell회합실에 등록바람
2. 유아 세례 (오늘 공식 미사후, 11시)
3. 사도회 월례회 (오늘저녁 미사후, 9시)
* 금주의 숲정이 은인 *
사도회 부회장 양 윤 모(다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헌금 39,137원, 감사합니다